

2월 공동기도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내 혀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외치고
 내 입술은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시 51:10)



표지 | 류연복

서울YWCA 2008 02 VOL. 474

- | | | | |
|------------|--|-----------|--|
| 04 종마루 | 여성정책을 강화하라 | 18 서울Y 소식 | 2월 행사 안내
서울Y 포럼 · 서해안 기름제거 봉사자 모집
초등학생 겨울방학 프로그램
사진으로 보는 1월 |
| 06 정기총회 특집 | 2008년 사업 계획 · 2007년 사업 보고 | 23 현장 | 달팽이처럼 느리게 살래요 |
| 10 이달의 얼굴 | 내가 Y를 사랑하는 이유
40년 봉사상 수상자 강호영 · 송순옥 | 24 알림터 | 자격상실 회원 공고
직장인금요예배 · 회원 소식 |
| 12 내 인생의 책 | 권정생 이야기2 | 26 정직 캠페인 | 정직하면 행복하다 |
| 13 여성과 건강 | 골다공증 | 27 프로그램 | 2008 회원 강좌 |
| 14 삶과 신앙 | 사람과 자연을 살리는 길을 따라 | 28 이달의 명상 | 두 번째가 참 중요하지요 |
| 15 이사 칼럼 | Y는 나를 성장시킨 큰 스승 | | |
| 16 Y 샵터 | 뒤바뀐 봉투 · 세뱃돈은 사랑을 싣고 | | |

정직하면 행복하다

‘거짓말도 잘하면 눈 닷 마지기보다 낫다’는 속담이 있다. 처세를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말로 들린다. 속담처럼 거짓말과 거짓행동으로 대표되는 부정직이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남을 해코지하거나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도 위기를 모면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남을 배려하는 선의의 거짓말을 지칭하는 ‘화이트 라이’라는 것도 있지 않은가.

지난해는 학력 위조 사건을 비롯한 고위급인사들의 부정, 비리, 위법사건들과 관련된 부정직성 논란으로 얼룩진 한해였다. 거간의 언론과 사법부의 난해한 행보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부정직에 대한 국민의 불감증을 유발하는데 일조하였다. 오죽했으면 생각 있는 사람들 입에서 ‘이럴 수가 있나’ ‘어찌 이런 법이 있나’ 하는 개탄이 나왔겠는가! 무엇보다 서글픈 것은 우리 사회의 부정직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무성했던 부정직 논란을 반영하듯 어느 교수 집단에서는 ‘자기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인다’는 ‘自欺欺人’을 한 해를 보내는 사자성어로 선정했다고 한다. 거짓은 사람을 속이고 법망은 피할 수 있을지언정 자기 양심을 속일 수는 없다. 구약의 예서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팔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것처럼 양심을 하찮게 팔아넘긴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상실이요 자기 파괴이다. 거짓이 거짓을 낳는 거짓의 속성에 휘말리다 보면 사람들은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남의 눈치를 살피야 하는 비굴한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자신에게 정직하다는 것은 의지와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분명히 해낼 수 있는 일이다. 작은 일에서부터 실행을 거듭해보자. 십계명에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다. 이에 비하면 공중화장실에서 다음 사용할 사람을 위하여 배려하기와 같은 작은 정직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 그러나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신뢰사회는 우리 개개인이 자신에게 정직한 삶을 사는 바탕 위에 세워진다.

어떤 가정에서 행복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족구성원 각자가 ‘자기 헌법’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자기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한 자기의 행동 강령이며 자기와의 약속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신뢰사회 회복을 위한 서울YWCA의 정직캠페인이 거짓이 횡행한 우리 사회를 정화하는 불씨가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자기 헌법을 만들고 지키기를 제안한다. ■



박영숙 |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신뢰사회는
우리 개개인이 정직한 삶을 사는 바탕 위에 세워진다.
자신에게 정직하다는 것은 의지와 훈련을 통해 해낼 수 있다

* 서울Y는 정직이 기본 덕목이자 최고 가치가 되는 사회를 꿈꾸며 2008년 한 해 동안 정직 캠페인을 전개합니다.